

“세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禪은 인간 구할 정신문화”

인류는 지금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과학 문명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서양 학자들은 동양 문화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 문화를 찾고 있습니다. 선(禪)은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을 근원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정신 문화입니다. 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선의 도(道)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은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내 것' '네 것' 등 분별심에 기초한 문명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때부터 위대한 성인들이 나와 인류 구제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세계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 문명의 총아인 과학이 자연에 대해 품고있는 주요 생각은 '자연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류의 삶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편리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반대편이와 다들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 문명이 수세기 동안 지속돼 낡은 결과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분별심에서 비롯된 과학과 자연의 대립적 관계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경각으로 치달고 결국 대자연은 파괴될 것입니다. 대립과 투쟁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았던 20세기 초에 결국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은 돌이 아닙니다. 선은 원음무애한 자비심을 키워주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줍니다. 선의 입장에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등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단박에 평화 찾아갈 것입니다. 선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망심(妄心)을 다스려주기 때문입니다.

망심 중에서 분별심은 현 위기 상황의 주범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대립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보다 한층 더해 분별된 것을 선과 악의 대립 구조로 다시 나눕니다.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 등의 분별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악이 득세해 선을 선이라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선이 선이 아니고 참이 참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니면 절대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별 의식이 낡은 망심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생사(生死)와 죄악(罪惡)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선(禪)입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이 끊어진 곳에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서구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잠재의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에서도 잠재의식에서도 망심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껏 의식의 세계는 주관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면할 수도 없고 죄악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식 세계가 있는 동시에 무의

서옹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의식·무의식 초월
망심을 다스리면
단박에 평화찾는다”

식(이러야)의 세계도 있습니다.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는 동일한 차원이므로 둘 다 주관과 객관과 생사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관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죄악과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초월하여 주관과 객관과 생사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초월한 경지에서 어떤 결림도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선방에서는 “의식도 투과하고 무의식도 투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으론 의식을 투과할 수 없겠지만 무의식을 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길은 화두를 드는 방법 밖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생사 문제의 해결은 지해(知解)로도 성취하지 못하며 의식을 무조건 끊는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사선의 공안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르며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천7백여개의 공안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한히 많습니 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 약력**
- 1912년 충남 논산 생
 - 1932년 백양사서 민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62년 동국대학교 선원장
 - 1964년 무문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선원 조실 역임
 - 1974년 조계종 제5대 중정
 - 現 장성 백양사 운문암에 주석
 - 저서 <선과 현대문명> <절대현제의 참사람> <절대 참사람> 등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화두 공안이든지 그 중에서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공안은 일시에 해결됩니다.

공안을 제대로 참구하려면 먼저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생사를 해결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안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온 깨달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조주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선종의 시조인 달마스님이 서쪽 인도에서 중국에 오신 뜻을 묻는 것은 조사선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어째서 “뜰 앞의 잣나무”라 했는지 의심을 하되, 분별심으로 따져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뜰 앞의 잣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없이 “뜰 앞의 잣나무”와 한 덩어리가 되어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의심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의식이 통일(統一)하게 됩니다. 더욱더 용맹정진하면 의식이 아주 딱 끊어져서 돌덩어리 쇠덩어리 같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른 지금까지 화두에 쏟았던 의식은 더욱 성성(惺惺)해 질 것입니다. 이것이 두번째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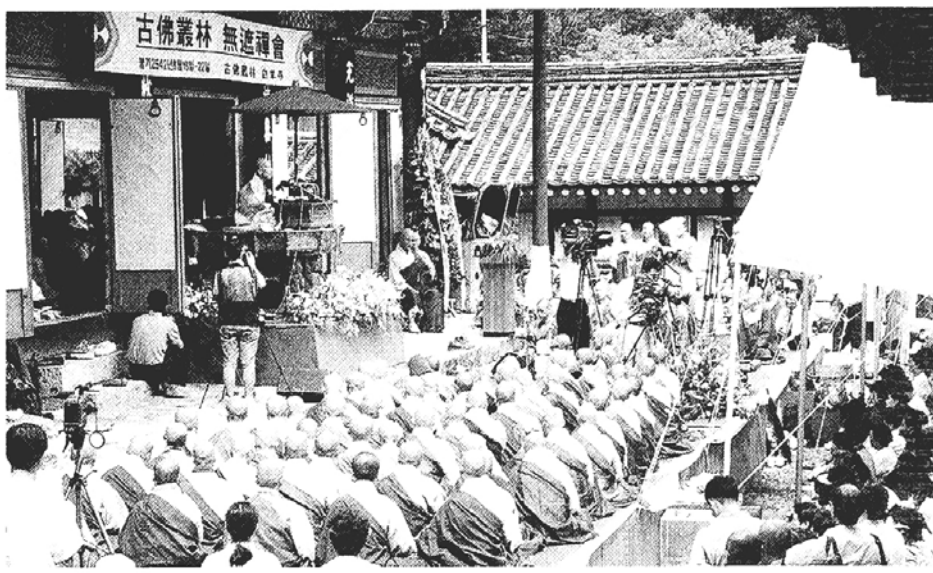
바로 여기에서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 초차 초월하게 됩니다. 이 경지에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현성(現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에는 생사도 없고 죄악도 없고 공간도 시간도 없이 무한히 자유자재합니다. 모든 것이 상호 원음무애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무한히 초월하고 현성하면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활발 자유자재 하더라도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서 따로 따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노(愚老)가 말하는 조사선의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법거랑 수좌: “부처님도 스님도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고불총림 임제스님만이 참학하셨습니 다. 임제스님 보다는 스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서옹스님: “내 모습이라도 30방이요, 내 모습을 투과(透透)해도 30방이다.”

무차선회 세 큰스님 법어

18일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에는 5천여 사부대중이 모여 다. 세 스님의 법문과 수좌들과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

부처님과 조사의 해탈의 도를 알고자 할진대 만가지 법이 비록 음이나 서로 이르지 못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이 다 끊어짐이나 소리와 빛깔의 무더기 속에 넓고 넓은 땅이로다. 온 세상의 쉼을 다 참구하는 자여! 항상 활구선을 참구할 지어다.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후 하신 말씀이 “31일동안 사유하고 사유해도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고만고 끝에 도를 깨달은 후 열반에 드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신 것입니까. 부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올바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문수보살이 앞에서 이를 지켜보고 “법은 비록 그러하나 방편으로써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니 부처님께서 “너의 말에 알리가 있구나!” 하시고 49년간 인연과 그 뜻을 따라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내가 49년동안 인연과 그곳에 따라 팔만사천 법문을 설했지만 실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의 삼십삼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면 그 의미의 머리와 꼬리를 벗어내지 못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서양인들은 ‘마음 다스리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불교의 심인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심인법은 혜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혜능스님이 어느날 “나에게 한 물건이

진제스님 동화사 조실

“눈밝은 선지식만나
바른 참구법 배워
자나깨나 화두들라”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받치고 밝기로는 일월보다 밝고 검기는 못칠보다도 검다. 이름도 모양도 없되 일상 동용(動用) 중에 가고 오고 말하는 가운데 쓰고 있으면서도 거두어 알지 못하니 이 무엇인고?”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일어선서 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불성입니다”라고 했지요. 이에 혜능스님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하고 호통을 쳤다.

그후 7년만에 회양스님이 찾아와서 답하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니 혜능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님이 증득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오염될 순 없습니다” 혜능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이 오염되지 않음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이라. 네가 벌써 이리하고 나 또한 이리하니라”라며 회양스님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혜능스님이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를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부



처님 정안(正眼)의 법을 면밀히 이은 사들은 돈오돈수를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가한 본래의 뜻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인데 있습니다. 그러면 견성성불을 위해서는 어떻게 정진해야 하느냐? 참선을 해야 합니다. 고래부터 많은 스승들이 화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구를 참구하여 분명히 크게 깨들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된다”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화구 참선이겠습니까? 일천(一千)인의 말을 일시에 투과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스승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어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 사할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 3회 분할가능
- ※ 각종 신용카드 정기분할가능

₩28,000 별도 판매 가능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시은품 증정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법화경을 바로 알아!

독도는우리 땅

법화경은 <법화삼부경>의 약칭입니다.

요주의

- ◎ 법화경에는 <나무묘법연화경>을 부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 ◎ 법화경에는 <제목봉창>을 하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 일본의 어떤 종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척하고 일본의 한 승려를 부처로 추앙하는데서 <나무묘법연화경>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말로 <나무묘법연화경>입니다.

부처를 바로 알고 법화경을 바로 공부합니다.

한국승가대학원
(사)한불종·법화경고단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 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 서신 : (우)701-600대구 동대구 우체국 사서암 41호

관음출판사

활제의 신간

일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 한번 보고 사름을 알 수 있는
성공 비즈니스의 체세술과 운명학

『如欲知己는 自觀百體, 이란 말도 相府를 알아야만 통제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相府이란 分府가 우리 生活와 얼마나 그 比否가 무거운가 하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家庭에서는 實業으로 職場에서는 處分指針과 같은 이 둘이 社會生活의 必順 參考로 餘暇를 用하여 探讀하면 教養 精神을 薰陶하는 비입니다.』
— 周易通信大院長 梁智庵

哲學博士 曹 誠 佑 지음 / 값 15,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고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명작

신권판/값20,000원

김백만 편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역을 사고 주석을 관려하고 하는 등 대단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읽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坪 지음
중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은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가(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격(人格)은 지령(池嶺)이라 하였다.

값18,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현대불교

지시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전주지사	0591-747-0106
대전·행재	0551-9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